

보도 희망 일시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
	안웅섭 전화: 031-888-9055, 이메일: aws6912@snu.ac.kr

배포일: 2024.9.3.(화)

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, 서울대 연구시설 평가 최우수 등급 및 경기도 경영평가 A등급

- 서울대학교 · 경기도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(원장 차석원, 이하 ‘융기원’)이 최근 경영평가와 연구소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, 관·학 협력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.
- 융기원은 서울대와 경기도가 각각 50%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관·학 협력 융합기술 전문 연구기관이다. 서울대 연구원 및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, 서울대 연구시설 평가와 경기도 경영평가를 함께 받고 있다.
- 3년마다 진행되는 ‘서울대학교 연구시설 평가’에서 2015년, 2018년, 2021년에 이어 2024년에도 4회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(A1) 등급을 획득했다. 올해 평가는 공학연구원, 수의과학연구소, 신소재공동연구소, 반도체공동연구소 등 서울대 총 74개 연구소(이공계 개별 연구소 34개 포함)를 대상으로 진행됐다. 융기원은 국제공인 학술지 게재, 국내 및 국제 특허 취득, 기술 이전 등 약 20% 이상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대표 연구실적, 연구시설과 연구장비, 국제화 활동, 대학 및 사회기여, 차기 3개년 개별연구소 활동 계획 등에서 만점을

받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

- 용기원은 ‘2024년(2023년 실적)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’에서 3년 연속 나등급(A등급)을 달성했다.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 성과와 노력,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고,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. 용기원은 RE100 달성을 위한 민간 참여형 태양광 설치 계획,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취득을 통한 PDCA(Plan-Do-Check-Act) 기반 안전보건체계 확립, 도정 방향과 이해관계자 Needs를 바탕으로 한 경영전략과 ESG 경영전략 수립 등 혁신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도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.
- 차석원 원장은 “용기원은 지원사업 중심의 일반적 공공기관과는 달리, 도내에서 유일하게 직접 R&D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이다. 경영과 연구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내며, 관·학 협력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,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”며 “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만큼,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함께 연구의 수월성 추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용기원은 2008년 개원 후 2018년 서울대학교와 경기도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 됐으며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 사업, 경기도 반도체 육성지원 사업,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사업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해양수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차석원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.